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

남원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협력 방안 모색 위해 베트남 방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및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현지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원시는 현지 교육기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방문 기간 남원시는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설립 취지와 글로벌커머스학과·한국어학과·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를 소개하고, 단기 연수·문화교류체험·동아리 교류 등 정례적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협의했다.

특히 1월 22일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교육 포럼 교수·학술 활동에서의 STEM·AI·로보틱스 적용에 참석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교육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TEM·AI·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남원시는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교류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현지 교육 기관과 해커톤, 경진대회 등 국제 대회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단발성 방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원시는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와의 의



남원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및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현지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과 포럼 참석을 통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지리"라며 "현지 교육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남원이 교육과 디지털 교류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쉼랜드, 치유관광 거점 도약

지난해 1만6600여명 방문... 치유·웰니스 관광지 자리매김

순창군이 운영하는 힐링 연수시설 '쉼랜드'에 2025년 한 해 동안 약 1만 6,600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치유·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치유와 힐링을 테마로 운영되는 쉼랜드는 다양한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인구와 교류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쉼랜드 전체 시설 이용객 수는 방갈로와 일가게 이용객을 포함해 총 1만6,614명에 달했다. 이들은 교육 참여뿐 아니라 단순 방문, 회의 개최, 휴식 공간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쉼랜드를 찾았으며, 공간 활용의 다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총 102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4,163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한 치유연수 프로그램은 평균 97.2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실제로, 참가자의 대부분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 또한 99%를 넘어섰다. 등, 교육의 질과 만족도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창군은 2026년 '전국 제1의 웰니스 관광지'를 목표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8개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퇴직 예정 교원을 위한 '인생설계 직무연수', 직장을 위한 '월-데이 힐링연수', 노년층 대상 '시니어 슈퍼맨', 아동·청소년 대상 '동심놀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식 워킹 클래스', 메디푸드 중심의 요리 체험, 중장년층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세분화해 구성되며, 1일 체험부터 3박 4일 연수까지 일정과 비용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순창군민의 경우 교육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 참여율도 함께 높이고 있다.

한편, 쉼랜드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순창군청 건강장수과(063-650-1527) 또는 순창 쉼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접수

임실군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6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농업인의 급식 수요가 있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개소당 320만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2월 6일까지 마을 대표자가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을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마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자연재해·농기계사고 등 31개 보장항목 확대

임실군이 운영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생활 속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이날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일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 외에도 올해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31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2,300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1577-5939)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자봉센터, 재난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남원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2일,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재난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재난 발생 사례와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기존 교육 이수자들도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맞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재난자원봉사 사례 분석,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체계 및 운영 방식 이해, 기후 재난 시대 재난 양상의 변화, 재난 현장 수요 분석 및 대응 사례 등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지원을 연중 운영하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섰다.

남원시는 2023~24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첨단 분석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농산물 출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출하 전 단계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까지 안전분석실을 방문해 농산물 시료와 농업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관내 생산 농산물은 연 2회까지 무료로 분석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제작·홍보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담당부서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포스터에는 △노인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총 30여

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건의료원은 이번 안내 포스터를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지소, 진료소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부착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